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Taijin Kyofusho) 증상에 미치는 영향: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 효과

김민재

김은정[†]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Taijin Kyofusho)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33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 163명, 여성 171명)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 대인공포증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적합도 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가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잘 설명되었고, 경로분석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속 매개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대인공포증을 이해하고 개입함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성격적 변인, 편집 사고와 같은 인지적 과정 변인, 사회적 고립과 같은 행동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사회 불안, 대인공포증,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

* 본 연구는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김은정,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Fax: 031-219-2195, E-mail: kej@ajou.ac.k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 따르면 대인공포증(Taijin Kyofusho, TKS)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외모와 동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쾌할 것이라는 확신이나 느낌, 생각으로 인하여 대인관계 상태를 기피하거나 불안한 특징을 보이는 문화적 증후군”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837p).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 모두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이 두 장애의 두려움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두려워하지만,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표현, 또는 외모로 인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Chang, 1997; Hofmann, Asnaani, & Hinton, 2010; Kleinknecht, Dinnel, Kleinknecht, Hiruma, & Harada, 1997; Suzuki, Takei, Kawai, Minabe, & Mori, 200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이전 판(DSM-IV)에서는 대인공포증을 일본의 문화 특유적인 증후군이라고 정의했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그러나 최근의 문헌들은 유사한 형태의 증후군들이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호주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발견됨을 보고해 왔다(Choy, Schneier, Heimberg, Oh, & Liebowitz, 2008; Clarvit, Schneier, & Liebowitz, 1996; Kim, Rapee, & Gaston, 2008). 예를 들어, 후각관계증후군(Olfactory Reference Syndrome, ORS)은 서구 사회에서 1800년대부터 보고되어 온 대인공포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Begum & McKenna, 2011; Feusner, Phillips, & Stein, 2010; Stein, Le Roux,

Bouwer, & Van Heerden, 1998). 후각관계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쾌하고 지독한 또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체취를 내뿜는다는 과도한 믿음을 지닌다. DSM-5(2013)에서는 대인공포증을 여전히 문화 특유적 증후군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대인공포증은 문화 특유적 증후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 또한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개념 또는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인들에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대인공포증이 대체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나 집단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독립적-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서구인들이 경험하는 자기에 대한 특징으로, “상호의존적-집단주의적”이라는 것을 동양인들이 경험하는 자기의 특징으로 기술해 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었다. 독립적, 개인주의적 자기개념과 대인공포증과의 부적 상관은 다양한 문화 집단 표본을 활용한 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의존적, 집단주의적 자기개념과 대인공포증과의 관련성은 연구들에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김은정, 조용래, 2008; Dinnel, Kleinknecht, & Tanaka-Matsumi, 2002; Vriends, Pfaltz, Novianti, & Hadiyono, 2013; Zhou et al., 2014). 한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은 미 국인 표본에서만 대인공포증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일본인 표본에서는 관련이 없었다(Kleinknecht et al.,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인공포증이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 자기개

념 둘 모두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거나(김은정, 조용래, 2008), 어느 것보다도 관련이 있지 않았다(Zhou et al., 2014). 결과들은 대인공포증이 자기개념과 같은 문화적 변인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못함을 보여주며,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D'Avanzato & Dalrymple, 2016). 한편, 대인공포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소수 있었다. 김은정과 조용래(2008)는 분노관련 변인중 분노억제가 대인공포증을 설명한다는 것을 밝혔고, Zhou 등(2014)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대인공포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공포증을 설명할 수 있는 유망한 성격 변인, 사회 인지적 변인, 대처 전략 관련 변인들을 통해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Yamashita(1977)는 일본에서 대인공포증을 가진 100명의 외래 환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고하면서, 이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질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기감의 결여"와 함께 기저의 경쟁성, 자만심,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보였다(Chang, 1997에서 재인용). "자기감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를 정의하는 핵심 특징 중의 하나로, Kohut(1971)에 따르면 자기애의 핵심 병리는 자기 응집성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구조의 결함 또는 부재라고 하였다. 비록 DSM-5(APA, 2013)에서는 웅대성, 찬사에 대한 요구, 공감의 결여 등의 측면들만이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자기애의 역동을 가진 자기애의 다른 양상들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Wink(1991)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에 있는 6개의 자기애 관련 척도들을 요인분석하여 두 개

의 독립적인 자기애 관련 요인들을 추출해 냈으며, 추출된 요인 중 하나는 취약성-과민성 유형, 다른 하나는 과대성-과시성 유형이었다. 취약성-과민성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이들은 방어적, 불안한, 걱정이 많은, 신경이 날카로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과대성-과시성 유형의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 주도적, 과시적, 공격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취약성-과민성 유형의 자기애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삶에서의 외상이나 심지어는 자살과 정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eis, Brown, Carroll, & Arkin, 2015; Pincus, Cain, & Wright, 2014; Wink, 1991). Cooper(2000)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동일한 자기애적 역동을 지나나 다른 현상학적 특징을 가지는 이유를 방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웅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한다. 또한 두 자기애 성향 모두 웅대하면서도 취약한 자기개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첫째, 외현적 자기애 성향은 웅대한 자기 표상과 오만한 태도가 주된 특징으로 나타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타인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하고 평가받기를 두려워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애로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애성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외현적 자기에 성향과 다르게 겉으로 잘난 척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수정, 2016). 둘째, 외현적 자기에 성향의 경우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자신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적극성을 보이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쉽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다(원주식, 2006). Gabbard(2014)의 임상적 기술을 살펴보면, 자기에적 사람들 가운데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고 관심의 초점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무감각형 자기애로, 타인의 반응에 특별히 민감하여 관심이 온통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과민형 자기애로 기술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취약성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증상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과대성 자기애를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대인관계에서의 고통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Dickinson & Pincus, 2003). 이렇듯 자기애에서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 평정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Miller et al., 2014; Miller, Lynam, Hyatt, & Campbell, 2017). 연구마다 용어나 명칭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취약성-과민성 유형의 자기애를 겉으로 자기에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로, 과대성-과시성 유형의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로 기술하고 있는 바(심상홍, 이장한, 2012), 본 연구에서도 이후부터는 두 구분되는 유형의 자기애를 '내현적-외현적' 자기애로 지칭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특징이 대인공포증의 증상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사회 불안, 자기애, 분노에 관한 다양한 척도를 군집분석 한 연구를 살펴보면, 집단들은 '분노가 높은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 '전반적 사회불안 집단', '낮은 사회불안 집단'으로 분류되었다(Williams, 2016). 동 연구의 집단 차에 대한 검증에서 대인공포증 점수는 두 개의 내현적 자기애(분노가 높은 내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 사회불안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고, 대인공포증 특유의 인지, 즉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와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한다'는 인지 또한 이 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연구로부터 우리는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의 증상 및 인지와 차별적으로 또 크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으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경로분석을 활용한 기제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들에 개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Kazdin, 2007; MacKinnon & Dwyer,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가능성 높은 변인들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을 상정한 이론적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을 매개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편집 사고에 관해 살펴보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 역시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혹은 찬사에 대한 내적 환상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심한 사회적 불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내적 환상이 좌절되기 쉽고, 대인관계 장면에서 쉽게 위협을 느끼게 된다. 편집 현상에 대한 수치심-굴욕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부적절감에 대한 신념이 촉발될 때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수치심의 신호들을 탐지하게 되며, 굴욕감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게 된다고 한다(Colby, 1977; Thewissen, Bentall, Lecomte, van Os, & Myin-Germeyns, 2008; Thewissen et al., 2011).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질을 가진 사람 역시 사회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가치감을 회피하기 위해 편집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Horvath & Morf, 2009).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안과 편집 사고가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보고해 왔다(Gilbert, Boxall, Cheung, & Irons, 2005), 즉 편집증과 사회불안 모두 대인관계 맥락에서 경험되는 현상이며, 자신이 타인의 주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믿음,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정보에 대한 민감성 등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대인공포증에 대한 증상 특징 역시 편집적 특성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Freeman 등(2005)의 비 임상 표본에서의 편집증에 대한 조사에서 편집증의 위계가 제시되었는데, 사회적 평가에 대한 염려는 편집증 위계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사회적 평가에 대한 염려 또한 편집증 스펙트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대인공포증에서의 타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불안 및 염려 또한 일종의 편집증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사회 불안 장애를 가해 염려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집단(일반적 사회 불안 집단 대 대인공포증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연구에서, 두 하위 집

단 모두 회피성 성격장애와 공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편집성 성격장애와의 공존은 일반적 사회불안 집단 보다 대인공포증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Nagata et al.,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대처 전략과 관련된 또 다른 매개 변인으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복적/자기-중심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적 문제들을 보인다(Given-Wilson, McIlwain, & Warburton, 2011). 몇몇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편집 사고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집 사고는 회피적 대처, 정서 표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순종적인 행동, 좋지 못한 관계의 질,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Freeman et al., 2005; Riggio & Kwong, 2011). 비임상 표본을 활용한 편집증에 대한 실험연구 또한 편집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활동에 덜 관여하고 더 적은 사회적 접촉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각 및 사회적 기술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Combs, Finn, Wohlfahrt, Penn, & Basso, 2013; Combs & Penn, 2004). 이전의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편집 사고는 사회적 고립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편집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협을 과장되게 평가하고 그들의 정서적 사회적 대처 능력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내현적 자기애가 실제 또는 지각된 사회적 위협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위

협들은 편집 사고를 촉발하며, 타인에 대한 편집 사고들은 결국 사회적 고립을 이끌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협에 매우 취약하여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의심하게 되는 편집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편집 사고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덜 관여하고 사회적 접촉을 덜 하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이런 고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준다고 두려워하여 대인관계를 피하는 대인공포증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적, 인지적, 대처 전략적 특성들이 대인공포증 증상을 예측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격에 대한 연구들 또한 성격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표현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지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Cantor,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격 성향과 이러한 성향이 부적응적인 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및 행동에 어떻게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편집 사고 및 사회적 고립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속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연구가설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또한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334명의 학

생이 참여하였고, 남성이 163명, 여성이 171명이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측정도구

가해염려 사회공포증(대인공포증) 척도

(Tajin Kyofusho Scale; Kleinknecht et al., 1997)

본 척도는 31문항, 7점 척도(1-7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치이다. 문항은 대인공포증 환자와 비환자를 유의하게 결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항들과, 대인공포증 증상의 정의에 대한 묘사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두렵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s)는 미국과 일본 응답자들에게서 각각 .93,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가해염려 사회공포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조용래, 김은정, 2005), 내적합치도는 .96이었다.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Hendin & Cheek, 1997)

본 척도는 10문항 5점 척도(1-5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Murray's Narcism(narcisensitivity) Scale(1938)에 기반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 Murray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과대망상과 관심에 대한 터무니없는 요구를 보일 수도 있지만, 과민성, 불안, 피해망상을 동시에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Hendin과 Cheek (1997)는 MMPI의 내현적 자기애 문항과의 상관에 기반하여 Murray's Narcism Scale의 20문항 중 10문

항을 선별하여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를 개발하였다(예: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종종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고, 남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든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2-.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변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고,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편집 척도(Paranoia Scale, PS; Fenigstein & Venable, 1992)

편집 척도는 20문항, 5점 척도(0-4점, 0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척도로 편집 성향을 측정한다. 문항들은 MMPI 임상척도 중 Pa 척도에서 선택되었으며, 문항 중에서 지나치게 명백한 정신증적 증상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파일럿 연구를 통해 제거하였다. 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1-.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을 사용하였고(이훈진, 원호택, 1995), 내적합치도는 .92였다.

정서적/사회적 고독 척도(Emotional/Social Loneliness Inventory, ESLI; Vincenzi & Grabosky, 1987)

정서적/사회적 고독 척도는 30문항 4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측정치이다. 척도는 각 15문항 씩 고독과 고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부분은 정서적 차원(8문항)과 사회적 차원(7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 저자들에 따르면 고독은 지각된 고립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며, 고립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접촉으로부터 떨어진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적 회피, 동떨어짐과 같은 실질적 의미의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 7문항의 사회적 고립을 선택적

으로 사용하였다(예: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 원척도에서의 네 차원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2-.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7)이 변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82였다.

분석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20(Nie, Hull, & Bent, 2011)과 and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측정치들에 대한 기술통계, 상관, 내적 합치도가 분석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경로분석이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가 가정한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형 전체에 대한 카이제곱 값에 대한 검증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르면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Tucker-Lewis Index (TLI)는 .95에 근접해야 하며,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은 .06 이하일 경우 좋은 모형 적합도를 시사한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모든 측정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모든 변인 간 상관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1.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1. 내현적 자기애(HSNS)	(.78)			
2. 편집 사고(PS)	.602**	(.92)		
3. 사회적 고립(ESLI)	.545**	.493**	(.82)	
4. 대인공포 증상(TKS)	.586**	.668**	.532**	(.96)
평균	24.15	20.85	11.37	71.23
표준편차	6.62	12.75	4.02	31.58
범위	10-44	0-75	7-27	31-177

* $p < .05$, ** $p < .01$

주. 괄호안의 수치는 내적합치도(Chronbach's alpha)를 나타냄.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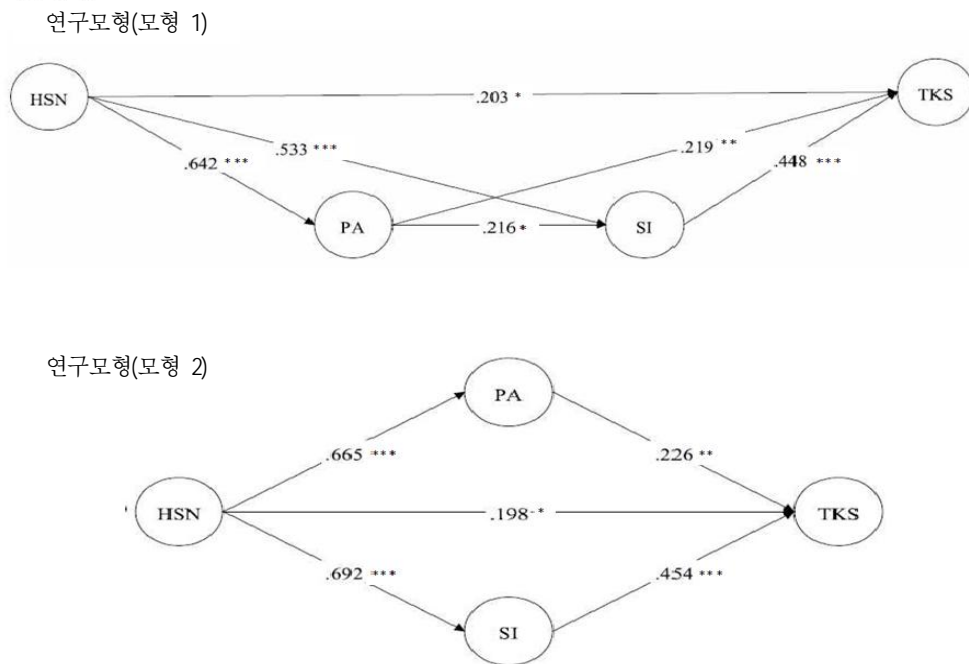
두 개의 경쟁모형에 대한 χ^2 검증 및 적합도 지수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첫 번째 제시된 모형은 연속(직렬) 다중 매개 모형(모형 1)이며, 대안적인 모형은 병렬 다중 매개 모형(모형 2)이다(그림 1). 모형 1에 대한 검증에서 χ^2 값은 유의미하였다($\chi^2=98.42$, $df=48$, $p<.001$). 유의미한 카이제곱 값은 자료와 모형이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큰 표본 크기는 자료가 모형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카이제곱 값을 도출해 내기도 한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TLI = .976, CFI = .983, RMSEA = .056).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이 연속매개 한다는 모형은 우리가 수집한 자료로 충분히 잘 설명되고 할 수 있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경로 하

나(편집 사고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포함 모형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통해 이 두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모형 1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 2에 비해 카이제곱 값이 9.13이 작고, 자유도가 1이 작다.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자유도 1일 때의 카이제곱 값은 3.84이고, 카이제곱 값의 감소 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하였으므로 모형 1이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Delta\chi^2=9.13 > \chi^2_{.05}(1)=3.84$, $\Delta df=1$). 더욱이 모든 전통적 적합도 지수가 대안모형($\chi^2=107.55$, $df=49$, $p<.001$, TLI=.973, CFI=.980, RMSEA=.060)에 비해 연구모형($\chi^2=98.42$, $df=48$, $p<.001$, TLI=.976, CFI=.983, RMSEA=.056)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우수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인 연속매개 모형이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SMC) 값은 .58로,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고립이 대인공포증 변량의 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경쟁 모형들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chi^2(df)$	TLI	CFI	RMSEA
연구모형(모형 1)	98.42(48)***	.976	.983	.056
대안모형(모형 2)	107.55(49)***	.973	.980	.060

주. χ^2 =chi-squared, df=degrees of freedom,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준화된 회귀 계수가 제시되었음.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 고립, TKS= 대인 공포증.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대인공포증에 대한 경험적 모델

경로분석 및 가설 검증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세부적인 매개 효과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해 검증하였고(n=5000 부트스트랩 표본)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바와 같

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관계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연속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beta = .227$, $p < .05$, 95%CI [.064-.439]). 내현적 자기애와 편집 사고 각각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beta = .515$, $p < .001$, 95%CI [.159-.918]; $\beta = .874$, $p < .001$, 95%CI [.507-1.304],

표 3. 세부적 매개효과 검증

	추정치(β)	표준오차(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HN→PA→TKS	.515***	.193	.159	.918
HN→SI→TKS	.874***	.204	.507	1.304
HN→PA→SI→TKS	.227 [†]	.095	.064	.439

주.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고립, TKS= 대인공포증.* p<.05, ** p<.01, ***p<.001.

표 4.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임계치(CR)	p
HN → PA	.308	.642	.036	8.544	***
HN → SI	.773	.533	.140	5.526	***
PA → SI	.652	.216	.253	2.576	*
HN → TKS	.744	.203	.295	2.524	*
PA → TKS	1.674	.219	.631	2.653	**
SI → TKS	1.131	.448	.195	5.787	***

주. HSN=내현적 자기애, PA=편집 사고, SI=사회적고립, TKS= 대인공포증.* p<.05, ** p<.01, ***p<.001.

각각). 그림 1에 제시된 전체 모형에 대한 각각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내현적 자기애는 편집 사고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beta=.642, p<.001$), 편집 사고 또한 사회적 고립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beta=.216, p<.05$), 사회적 고립도 대인공포증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eta=.448, p<.001$).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고립에($\beta=.553, p<.001$),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공포증에($\beta=.203, p<.05$), 편집 사고가 대인공포증에($\beta=.219, p<.01$) 미치는 각각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의 관계에서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발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바와 같이 편집 사고와 사회적 고립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공포증 간의 관계를 연속 매개하였다. 또한 모형 비교에서 연속 매개 모형은 대안모형인 독립적 매개모형에 비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 모든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상기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편집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집 사고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결국 대인공포 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모델이 대인공포증을 설명한 변량이 58%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에 연구되었던(김은정, 조용래, 2008) 분노관련 변인(22%), 개인주의적-집단주의적 문화 관련 변인(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설명량이며, 대인공포증 증상이 문화적 변인이나 정서와 관련된 변인 보다 내현적 자기에 성격특질, 편집적 사고 경향성, 행동적인 사회적 회피에 의해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인공포증에 대한 매개 모형을 검증한 연구는 극소수이며(Zhou et al., 2014), 본 연구는 대인공포증을 연구함에 있어 성격적 변인, 인지적 변인, 대처 방략과 관련된 행동적 변인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기존의 개념적, 이론적 문헌들과도 일치한다. 자기애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인 Kohut과 Wolf(1986)는 자기애적 개인들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자기애적 사람들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강렬한 욕구는 거절에 매우 민감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체계는 편집증적으로 되거나 극도로 고립되고 회피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철수되고 고립되어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거나 잠재적인 위험한 침투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Kohut & Wolf, 1986; Wolf,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Kohut과 Wolf(1986)가 초기에 제시한 자기애적 성격의 한 유형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개념 및 기술을 재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경험적 문헌을 통해서도 지지되는데, 결과에서 내현적 자기에 편집 사고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이는 편집증에 대한 수치심-굴욕감 이론에서 설명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Colby, 1977). 보다 최근의 경험 표집법을 활용한 실증 연구들에서도 편집적 사고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의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 바 있다(Thewissen, Bentall, Lecomte, van Os, & Myin-Germeys, 2008; Thewissen et al., 2011). 편집 사고는 사회적 고립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위협적인 자극에 직면하면 회피가 뒤따르며, 이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적 역할을 한다는 경계-회피 가설과도 일치한다(Mogg, Bradley, De Bono, & Painter, 1997; Pérez-Edgar et al., 2011; Wieser, Pauli, Weyers, Alpers, & Mühlberger, 2009). 높은 수준의 편집적 성향은 더 큰 우울감, 사회 불안, 회피, 평가염려, 자기감찰, 낮은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었다(Martin & Penn, 2001). 또한 Chong과 Davis(2017)의 최근 실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상에 위협이 되는 자극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인 주의 회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적 및 사회적 위협에 매우 예민하고 자기 표상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대인관계적 회피나 사회적 고립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편집 사고, 사회적 회피, 대인공포증 변인들 중 개별적인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반복적으로 시사되었으며(Dickinson & Pincus, 2003; Given-

Wilson et al., 2011; Horvath & Morf, 2009; Nagata et al., 2011; Riggio & Kwong, 2011; Williams, 2016; Wink, 1991),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대인공포증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인공포증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 및 경로에 대한 제안은 치료적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대인공포 증상이 있는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임상가들은 성격에서의 취약성,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편집 사고 및 사회적 대처 방략으로서의 고립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치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사회공포증 전반에 대한 기존의 잘 정립된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와 세르토닌계 약물치료이다 (McGinn & Newman, 2013). 대인공포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들 역시 사회공포증 환자를 위한 전통적인 집단 인지행동치료(조용래, 김은정, 2005; Kim et al., 2008; Nishikawa, Laposa, Regev, & Rector, 2017)와 세르토닌 재흡수 억제제 약물(Matsunaga, Kirriike, Matsui, Iwasaki, & Stein, 2001; Nagata et al., 2006)에 잘 반응하였다. 인지행동치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치료적 요소들은 노출, 인지적 재구성, 이완 및 사회기술 훈련이다 (Canton, Scott, & Glue, 2012). 그러므로 임상가들이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의 상기 구성요소들을 대인공포증 내담자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치료의 주요한 방략일 수 있을 것이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임상가들이 반드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사회불안(자기 초점의) 뿐만 아니라 편집증적 사고(타인 초점의) 둘 다를 탐색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Gilbert et

al., 2005). 또한 임상가들은 그들의 편집적 사고 기저에 있는 인지적 오류들을 발견하고 부적응적인 인지를 보다 적응적인 인지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략을 탐구하기 위해 Freeman과 Garety가 제안한 편집증에 대한 인지행동적 접근의 단계들을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Freeman & Garety, 2006). 더 나아가 노출 및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유용한 개입 전략이 될 수 있다(Cruwys et al., 2014).

성격특질로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짧은 치료 회기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인공포증의 집단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치료적 기제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공포증의 세부적인 증상들(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 감소되었다(Nishikawa et al., 2017). 인정에 대한 욕구는 자기에적인 개인들이 자존감을 조절하는 주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Raskin, Novacek, & Hogan, 1991),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공포증의 핵심 병리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임상가가 낮은 자존감 및 인정에 대한 욕구와 같은 자기에적 내담자들의 핵심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안적 전략으로서는 수용 전념 치료를 들 수 있다. 사회불안에 대한 증거기반 심리사회적 치료는 대개 인지행동치료지만, 불안장애를 가진 표본 중에서 행동적 회피가 심한 개인들에게서는 수용전념치료가 인지행동치료를 넘어서는 치료효과를 보였다(Davies, Niles, Pittig, Arch, & Craske, 2015). 수용전념치료는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경험적 회피를 감소시

키며, 가치있는 삶에 대한 전념행동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내현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의 편집 사고는 지각된 위협적인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경직된 방어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수용전념치료는 비판단적 수용과 개인의 진정한 경험을 방어 없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Herbert & Cardaciotto, 2005). 따라서 수용전념치료는 대인공포증이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경직된 방어로서의 편집적 사고들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접근은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회피 및 고립을 줄이며, 보다 가치 있는 삶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전념치료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매개 변인들에 대한 개입을 촉진할 수 있는 유망한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탐색 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는 횡단적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횡단적 매개 모델은 편향된 추정치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Maxwell & Cole, 2007). 본 연구는 가정된 변인들 간의 가능성 있는 관계들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이론적 모델이 이전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는 명백하지 않다. 우리가 참조한 많은 연구들은 상관이나 회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과적인 관계성을 가지

고 있다고 확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적인 것일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집단으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활용한 종단 연구 설계가 대인공포증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7). 대학생의 고독: 정서적·사회적 고독척도의 개발. *학생연구(서울대학교)*, 30 (1).
- 김은정, 조용래 (2008).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회공포증과 분노관련 변인들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613-632.
- 심상홍, 이장한 (2012).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87-100.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心理科學*, 4(2), 15-29.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조용래, 김은정 (2005). 가해염려를 동반한 사

- 회공포증: 한국판 TKS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97-411.
- 한수정(2016). 자기애적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text revision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gum, M., & McKenna, P. J. (2011). Olfactory reference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of the world literature. *Psychological Medicine*, 41(03), 453-461.
- Canton, J., Scott, K. M., & Glue, P. (2012). Optimal treatment of social phobi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8, 203-215.
- Cantor, N. (1990). From thought to behavior: "Having" and "doing" in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45(6), 735.
- Chang, S. C. (1997). Social anxiety (phobia) and east asian culture. *Depression and Anxiety*, 5(3), 115-120.
- Chong, S., & Davis, R. (2017). Can't take my eyes off me: Attentional bias of the vulnerable narcissi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 308-311.
- Choy, Y., Schneier, F. R., Heimberg, R. G., Oh, K., & Liebowitz, M. R. (2008). Features of the offensive subtype of Taijin Kyofu Sho in US and korean patients with DSM IV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5(3), 230-240.
- Clarvit, S. R., Schneier, F. R., & Liebowitz, M. R. (1996). The offensive subtype of taijin-kyofu-sho in new york city: The phenomenology and treatment of a social anxiety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7(11), 523-527.
- Colby, K. M. (1977). Appraisal of four psychological theories of paranoid phenomen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1), 54.
- Combs, D. R., Finn, J. A., Wohlfahrt, W., Penn, D. L., & Basso, M. R. (201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functioning in nonclinical paranoia. *Cognitive Neuropsychiatry*, 18(6), 531-548.
- Combs, D. R., & Penn, D. L. (2004). The role of subclinical paranoia on social perception and behavior. *Schizophrenia Research*, 69(1), 93-104.
- Cruwys, T., Dingle, G. A., Hornsey, M. J., Jetten, J., Oei, T. P., & Walter, Z. C. (2014). Social isolation schema responds to positive social experiences: Longitudinal evidence from vulnerable popula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3), 265-280.
- D'Avanzato, C., & Dalrymple, K. L. (2016). Recent insight into the subtypes of social anxiety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18(5), 50.
- Davies, C. D., Niles, A. N., Pittig, A., Arch, J. J., & Craske, M. G. (2015).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indices of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outcome from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anxie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6, 35-43.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Dinnel, D. L., Kleinknecht, R. A., & Tanaka-Matsumi, J. (200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2), 75-84.
- Fenigstein, A., & Ve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1), 129.
- Feusner, J. D., Phillips, K. A., & Stein, D. J. (2010). Olfactory reference syndrome: Issues for DSM V. *Depression and Anxiety*, 27(6), 592-599.
- Freeman, D., & Garety, P. (2006). Helping patients with paranoid and suspicious thoughts: A cognitive-behavioural approach.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2(6), 404-415.
- Freeman, D., Garety, P. A., Bebbington, P. E., Smith, B., Rollinson, R., Fowler, D., Dunn, G. (2005).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paranoia in a non-clinical popul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MAY), 427-435.
- Freis, S. D., Brown, A. A., Carroll, P. J., & Arkin, R. M. (2015). Shame, rage, and unsuccessful motivated reasoning in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10), 877-895.
- Gabbard, G. O. (2014).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iatric Pub.
- Gilbert, P., Boxall, M., Cheung, M., & Irons, C. (2005). The relation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anxiety in a mixed clinical popul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2(2), 124-133.
- Given-Wilson, Z., McIlwain, D., & Warburton, W. (2011). Meta-cognitive and interpersonal difficulties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000-1005.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erbert, J. D., & Cardaciotto, L. A. (2005). An acceptance and mindfulness-based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Acceptance and mindfulness-based approaches to anxiety* (pp. 189-212) Springer.
- Hofmann, S. G., Asnaani, A., & Hinton, D. E. (2010). Cultural aspects in social anxiety and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7(12), 1117-1127.
-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Articles*, 2.
- Horvath, S., & Morf, C. C. (2009). Narcissistic defensiveness: Hypervigilance and avoidance of worth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6), 1252-1258.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zdin, A. E. (2007). Mediators and mechanisms of change in psychotherapy research. *Annual*

-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1-27.
- Kim, J., Rapee, R. M., & Gaston, J. E. (2008). Symptoms of offensive type taijin-kyofusho among Australian social phobics. *Depression and Anxiety, 25*(7), 601-608.
- Kleinknecht, R. A., Dinnel, D. L., Kleinknecht, E. E., Hiruma, N., & Harada, N.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2), 157-177.
- Kohut, H., & Wolf, E. (1986). The disorders of the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pp. 175-196) Morrison, AP.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cKinnon, D. P., & Dwyer, J. H. (1993). Estimating mediated effects in pre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7*(2), 144-158.
- Martin, J. A., & Penn, D. L. (2001). Social cognition and subclinical paranoid ide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3), 261-265.
- Matsunaga, H., Kiriike, N., Matsui, T., Iwasaki, Y., & Stein, D. J. (2001). Taijin kyofusho: A form of social anxiety disorder that responds to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psychopharmacology, 4*(3), 231-237.
- Maxwell, S. E., & Cole, D. A. (2007). Bias in cross-sectional analyses of longitudinal mediation. *Psychological Methods, 12*(1), 23.
- McGinn, L. K., & Newman, M. G. (2013). Status update on social anxiety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6*(2), 88-113.
- Miller, J. D., Lynam, D. R., Hyatt, C. S., & Campbell, W. K. (2017). Controversies in narcissism.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3*, 291-315.
- Miller, J. D., McCain, J., Lynam, D. R., Few, L. R., Gentile, B., MacKillop, J., & Campbell, W. K. (2014). A comparison of the criterion validity of popular measures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via the use of expert rat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26*(3), 958.
- Mogg, K., Bradley, B. P., De Bono, J., & Painter, M. (1997). Time course of attentional bias for threat information in non-clinic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4), 297-303.
- Muthén, L., & Muthén, B. (2012). *Mplus statistical modeling software: Release 7.0*
- Nagata, T., Matsunaga, H., van Vliet, I., Yamada, H., Fukuhara, H., Yoshimura, C., & Kiriike, N. (2011). Correlations between the offensive subtyp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nd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5*(4), 341-348.
- Nagata, T., van Vliet, I., Yamada, H., Kataoka, K., Iketani, T., & Kiriike, N. (2006). An open trial of paroxetine for the "offensive subtype" of taijin kyofusho and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3*(3), 168-174.
- Nie, N., Hull, C., & Bent, D. (2011). *IBM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0)*
- Nishikawa, Y., Laposa, J. M., Regev, R., & Rector, N. A. (2017). Social anxiety and fear of causing discomfort to others: Diagnostic

- specificity, symptom correlates and CBT treatment outcome.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5(4), 382-400.
- Pérez-Edgar, K., Reeb-Sutherland, B. C., McDermott, J. M., White, L. K., Henderson, H. A., Degnan, K. A., Fox, N. A. (2011). Attention biases to threat link behavioral inhibition to social withdrawal over time in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6), 885-895.
- Pincus, A. L., Cain, N. M., & Wright, A. G. (2014).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in psychotherap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5(4), 439-443.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 Esteem, and defensive Self 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1), 19-38.
- Riggio, H. R., & Kwong, W. Y. (2011). Paranoid thinking, quality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social outcomes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32(8), 1030-1049.
- Stein, D. J., Le Roux, L., Bouwer, C., & Van Heerden, B. (1998). Is olfactory reference syndrome an obsessive-compulsive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Neuropsychiatry*, 10(1), 96-99.
- Suzuki, K., Takei, N., Kawai, M., Minabe, Y., & Mori, N. (2003). Is taijin kyofusho a culture-bound syndrom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7), 1358.
- Thewissen, V., Bentall, R. P., Lecomte, T., van Os, J., & Myin-Germeys, I. (2008). Fluctuations in self-esteem and paranoia in the context of daily lif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1), 143.
- Thewissen, V., Bentall, R. P., Oorschot, M., van Lierop, T., van Os, J., & Myin-Germeys, I. (2011). Emotions, self esteem, and paranoid episode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2), 178-195.
- Vincenzi, H., & Grabosky, F. (1987). Measuring the emotio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257.
- Vriends, N., Pfaltz, M. C., Novianti, P., & Hadiyono, J. (2013). Taijin kyofusho and social anxiety and their clinical relevance in indonesia and switzerland. *Frontiers in Psychology*, 4, 3.
- Wieser, M. J., Pauli, P., Weyers, P., Alpers, G. W., & Mühlberger, A. (2009).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hypervigilance-avoidance hypothesis: An eye-tracking study.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116(6), 717-723.
- Williams, J. S. (2016). *When social anxiety and narcissism coincide: An exploration of narcissistic social anxiety subgroups*. (Unpublished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Melbourne, Australia,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
- Wolf, E. S. (2002). *Treating the self: Elements of clinical self psychology* Guilford Press.
- Zhou, B., Lacroix, F., Sasaki, J., Peng, Y., Wang, X., & Ryder, A. G. (2014). Unpacking cultural variations in social anxiety and the offensive-type of taijin kyofusho through the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indirect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self-construal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10), 1561-1578.

논문 투고일 : 2018. 08. 31

1 차 심사일 : 2018. 09. 03

게재 확정일 : 2018. 11. 28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jin Kyofusho symptom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Ideation and Social Isolation

Min Jae Kim

Eun Jung Kim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anoid tendency and social isol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ajin Kyofusho(TKS). We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to 334(163 male, 171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Path analysis conduc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the overall model fitted the data well. Analysis showed that paranoid tendency and social isolation sequentially 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TKS. The finding suggest that we could focus on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paranoid cognitive process, and behavioral social isolation to understand and intervene TKS.

Keyword : Tajin Kyofusho, social anxiety, covert narcissism, paranoid ideation, social isolation